

강원도정 소식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맞춤형 교육에서 취업까지 연결

강원도는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에 대한 강원도 전입·정착 활성화를 위해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대군인 정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을 들 수 있다.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서 알선은 물론 취업까지 연결하게 된다.

또 제대군인 취업·창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들과 우수기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군 장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특강 운영과 강원도 취업지원 포털(강원피플) 운영, 제대군인 전입·정착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철 강원도 자치행정국장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군의 우리도민운동’ 시책 추진을 통해 민·군·관 화합과 신뢰증진을 바탕으로 군과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민·군·관 상생협력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정/가/소/식

신창현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속초 출신 신창현 전 의왕시장(사진)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신 전시장은 100여명이 응모한 정책위 부의장 공모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제5정조위원회(환경, 노동, 여성) 부의장으로 선발됐다.

신 전시장은 속초고 16회 졸업생으로 민선 의왕시장과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송훈석 의원과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알림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지난 1월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교류·동반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이념을 내걸고 창간한 강원고성신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린 인재를 찾습니다.

- ◇부문 : 수습기자(남·여) 1명
- ◇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서류 :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각 1통
- ◇마감 : 9월 24일

※서류심사 후 면접이 진행됩니다.
※서류접수는 이메일(goseongnews@hanmail.net) 가.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 줄여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 ... 밭농사 위주 중소형 농기계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난달 30일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고성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농업관련 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축사, 테이프 컷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간성을 신안리 393번지 3,412㎡부지에 연면적 677,144㎡ 규모다. 국비 5억과 도비 1억, 군비 6억6천만원 등 총 1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4월 18일 공사에 들어가 지난 19일 완공하고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높이 6m 규모의 크레인이 설치된 보관창고와 세차장을 비롯해 부



지난달 30일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 참석자들이 기념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대시설이 꾸며져 있으며, 보관창고 안에는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퇴비살포기와 관리기 등 임대 농기계 48종 173대와 임대관리장비 4종이 구비돼 있다.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고성군 거주 농업인들과 텃밭을 가꾸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밭농사 위주의 중소형 농기계와 대형농기계에 부착해 사용하는 부속 작업기를 임대해 준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임대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기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 주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신속히 임대해 적기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송의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고성군 등 접경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사진)은 지난달 26일 13명의 의원과 함께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시 필요재원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 관할부대장이 사업승인권자와 최소한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광호 기자

독거노인들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고성군 공무원들 ‘사랑의 지팡이’ 봉사활동 전개

고성군 공무원들이 9월 1일부터 부서별로 1명씩의 독거노인을 선정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사랑의 지팡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22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은 선정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과 주 3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필품 지원,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은 사업 효과가 좋을 경우 1부서 1 독거노인 선정을 1부서 2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등

참 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2012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무원 주도로 전개하는 만큼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공무원 스스로 솔선 참여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